

울프의 올란도: 들뢰즈/ 가타리의 “여성-되기”

김진옥

I. 들어가는 말

『올란도』(*Orlando*) (1928)가 출간되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은 작품의 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울프 자신도 이 소설에 대해 처음엔 가벼운 것으로 쓰려고 했는데 막상 써 놓고 보니 “아주 생동감 넘치지만…압도적인 충동의 산물”(허마이오니 리에서 인용 1050)이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다. 그 이후 비평가들은 『올란도』: ‘전기(A Biography)’의 부제가 의미하듯, 새로운 형태의 전기로서, 혹은 “가부장적 문학사에 대한 풍자”로 보아왔다. 또한 올란도가 고통을 겪지만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로 읽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포스트 구조주의와 더불어 페미니즘 물결에 의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헨킨스(Leslie Kathleen Hankins)는 『올란도』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소설로 읽고 있으며, 보울비(Rachel Bowlby)와 같은 비평가들은 『올란도』에 나타난 젠더 경계 사이의 동요나 복장 전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올란도』 비평가들은 이 소설에 나타난 젠더 문제나 욕망 혹은 복장 전환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들의 함의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성전환이나 복장도착이 현대의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설은

더욱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올란도는 여성으로 전환하며(transsexuality), 여장/ 남장(transvestism)을 자유로이 번갈아 하는데, 이런 변장을 통해 자아의 진실된 면을 더욱 많이 노출시킨다. 이런 올란도의 여성 되기를 들뢰즈/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의 “여성-되기(becoming-woman)” 개념에 비추어 해석해 본다면, 올란도의 자아나 욕망을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들뢰즈/ 가타리의 “되기,” “여성-되기”라는 개념으로 올란도의 여성 전환 욕구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의 욕망이 지닌 생산적인 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구성까지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들뢰즈/ 가타리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남성/ 여성, 어른/ 아이, 백인/ 흑인, 이성적/ 동물적)에서 “견고한 분할선”을 뚫고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혹은 “생성”(becoming)이란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에게 “되기”는 고정된 자아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차이, 다른 것, “다양체(multiplicity)”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남성, 규범, 다수성을 주체 개념으로 보는 경직된 사고를 거부하며, 이런 규범의 틀에서 탈주하는 과정으로 “되기,” “여성-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들뢰즈/ 가타리는 울프의 『올란도』가 이런 “되기를 형성하고 탈영토화의 많은 선을 형성하고” (『천개의 고원』 556) 있다고 주장한다. 올란도는 성별구분이 애매 모호한 복장 착용과 신비스런 성전환을 통해 고정된 정체성에서 탈주하여 탈영토화의 선을 감행하고 있다.¹⁾ 이 소설은 올란도의 복장도착과 성전환 묘사를 통해 남성/ 여성, 지배자/ 피지배자라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젠더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며 나아가 다양한 욕망이나 자아의 생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본 논문에서 올란도의 복장 도착과 성전환을 통한 여성-되기가 어떻게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한 개인의 다양한 자아나 욕망의 생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올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들뢰즈/ 가타리에게 “탈주(flight)”는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창조적이고, 정지된 점에서 나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것은 정형적인 논리를 따르기보다 역동적인 다양체 배치의 방식을 따라 증식될 수 있는 관계의 탈영토화의 끊임없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탈주선(lines of flight)”에 존재하는 삶은 생성과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시작이나 완결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II. 올란도의 복장도착: 젠더의 이항적 구조 해체

『올란도』는 표면적으로 올란도라는 시인의 전기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기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통적인 전기와는 다르다. 그 당시 전통적인 전기의 대상 인물의 연대기적 사실만을 나열하지 않고, 주인공이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 존재하고, 또 그의 일생의 중반기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게 함으로써 울프는 전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자적 요소와 파격적인 면 때문에 소설보다는 판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인공의 나이가 실제로는 서른 여섯 살이 된다고 하면서 이에 거의 10배인 34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며, 또한 밤과 낮, 남성과 여성 등 수 많은 대비가 등장하는 등 판타지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런 판타지 혹은 전기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삶과 자아에 관한 진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올란도는 복장 도착이나 성전환을 하며 “삶과 연인”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점에서 『올란도』는 매우 색다른 종류의 소설에 속한다.

『올란도』에서 주인공은 남성으로서 여성-되기를 통해 성별의 고정된 구분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며, 주어진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올란도는 여왕의 애총을 받았던 귀족 소년의 이미지와는 달리, 항상 성별구분이 애매모호한 복장과 여성이 된 후에도 남장을 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른 종류의 되기를 갈구한다. 비평가 루소(Mary Russo)가 지적하듯, “올란도의 몸은” 탈영토화 · “되기 · 생성 과정”(45)을 구체화하고 있다. 울프는 여성을 타자로 보는 지배문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한 여성을 소수자나 생성의 기본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들뢰즈/ 가타리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울프와 들뢰즈/ 가타리의 접속/ 만남의 장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들뢰즈/ 가타리의 “되기,” “여성-되기”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서구의 사고는 남성/ 여성, 지배자/ 피지배자 등의 위계적 이분법적 대립으로 구획되어져 왔으며,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중심주의(centrism)”에 기본을 두며, 특정한 한 부분 즉 “백인, 남성, 어른, 이성적인 것”에 우위를 둔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남성을 중심으로 보는 사회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중심화 해야 하는데, 이런 탈중심의 기본 개념이 여성-되기라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지배적인 것이 다수의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되기는 모든 되기의 시발점이고 경유지이며,” 이런 면에서 여성-되기는 다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의 윤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들뢰즈/가타리는 언어와 역사의 중심적인 주체(“남성”)를 거절하고 다양체를 주장하는데, 이런 다양체의 과정으로 여성-되기를 꼽고 있다. 여성은 다수의 남성 지배자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따라서 여성-되기는 다수의 지배자에게서 탈주하는 모든 것의 기본 개념이 된다. 그들에 의하면 여성(사회, 가족, 정치 등의 견고한 틀에 갇힌 물질 여성)도 여성-되기(분자적 여성) 2)를 해야 하고, 남성도 예를 들어 “여장이나 혹은 남성작가들의 여성 인물묘사”(『천개의 고원』 524)에서 보여지듯 여성-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기(becoming)는 존재(is)나 소유(have)가 아니며, 하나의 정해진 점이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다른 것 사이로 변하는 중간자적 존재를 의미한다. 들뢰즈/가타리에 의하면 되기는 “중간에 있으며, 하나도 둘도 아닌 둘 사이의 관계도 아니다. 생성은 둘-사이이며, 경계선 또는 도주선, 추락선”(『천개의 고원』 554)이며, “과정이고, 주체와 정체성을 분산시키는” 탈주의 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성-되기는 원래의 것에서 변용되어 여성의 문턱에 다가가는 것이지, 여성이 된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성-되기의 목적은 “지각불가능하게-되기(becoming-imperceptible)”가 되는 것이며, 즉 “얼굴성, 중심성, 지배적인 고정된 정체성을 잃음을 의미한다”(Flieger 40). 즉 고정된 자아나 주체성을 거부하고, 계속적인 생성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되기의 시발점으로서 여성-되기는 주체나 욕망이란 이분법적인 대립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들뢰즈/가타리는 여성-되기를 남성이나 백인 우위의 서구의 기본적 철학 개념인 이분법적 사고나, 자아의 정체성이나 욕망의 고정된 형태를 거부하는 비유로 이용하고 있다.

올란도는 들뢰즈/가타리가 주장한 이분법적 사고와 구분을 벗어나 탈주의 삶을 산 대표적 인물이다. 올란도는 30년간을 남성으로서 그 이후는 여성으로 살지

2) 물질(molar)은 통계학의 법칙에 따라 기능하는 집합적인 것, 따라서 정확한 세부사항, 차이, 특이성이 상쇄된 것이며, 분자적(molecular)은 유연한 과정이며 그것은 과정 혹은 구성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종종 국지적이고 작은 규모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되기는 분자적인 성분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모든 되기는 분자적이며 분자-되기라고 볼 수 있다. 분자적인 것은 특개성(héccité), 영어로는 이것임(thisness), 즉 이것을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이것으로 만드는 개념인 특개성과 일맥상통한다.

만, 시대로는 엘리자베스조, 왕정복고기, 신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빅토리아조를 거쳐서 시계 시간을 무시하며 사는데, 이런 시간 개념을 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별이나 모든 구조의 위계적 구분을 넘어 존재하는 인물임을 의미한다. 울프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1929)에서 남자대학/ 여자대학, 풍요/ 가난 등의 이분법적 사회 구도로 오는 가부장 문화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런 위계적 문화에서 여성들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에세이에서는 단지 이론적 주장에 그쳤다면, 『올란도』의 주인공은 실제 탈주의 선을 감행한다. 올란도는 남성이자 여성의 중간자적 존재이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걸쳐 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연대기적 시간의 역사는 중요치 않고, “비시간적”으로 구성되는 탈주의 선을 그린다. 들뢰즈/ 가타리는 울프를 “이원론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이에 존재하기, 사이를 지나가기, 간주곡이다”(『천개의 고원』 525)며 성별의 이항론 체계를 가로지르는 작가로 간주한다.

소설의 처음에서부터 올란도는 성별 구분이 애매모호한 복장착용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복장 착용은 성별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비유로 작용한다.

그는—남자인 것이 확실했지만 당시의 풍습으론 남잔지 여잔지 다소 분간 못할 모습을 하고 있었다—서까래에 매달려 있는 무어인의 머리를 막 베려고 하는 참이었다. (13)

러시아 대사의 딸 사샤(Sasha) 또한 겉으로 보기에 남녀 양성적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올란도는 사샤의 성별도 모른 상태에서 그녀의 이색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소년인가 아니면 여성인가, 러시아식의 풍성한 상의와 바지 때문에 알 수 없었으나,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극도의 호기심으로 가득 채웠다. 이름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 중키에 땀시있는 몸매로 전신에…벨벳을 입고 있었다”(37-8)며, 사샤의 성별구분이 애매모호한 모습과 복장에 올란도는 매력을 느낀다. 이 소설은 서술의 처음부터 올란도와 사샤의 양성적 모습, 또한 사샤의 양성적인 면에 대한 올란도의 이끌림을 묘사함으로써 이분법적 성별 구분의 견고한 틀에서 탈주의 선을 긋기 시작한다.

올란도는 성전환 후에도 성별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음을 자신의 애매모호한 복장 착용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성욕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자. 그런 밋살스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치우기로 한다. 이제 올란도는 목욕을 마치고 여자도 남자도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터키식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137-8)

올란도는 성별 구분이 애매모호한 복장 착용을 통해 위계적인 성별 구분에서도주나 탈주를 시도한다. 들뢰즈/ 가타리는 “일부 여장 남자들에게서 보이는 실재적 변형의 놀랄만한 시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천개의 고원』 522)며 지배계급에서 탈주하는 선으로 남성의 여성-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항적 구조를 넘어서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을 가로질러 남성들도 여성-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를 생산해 내며, 새로운 되기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몸을 숨기고 위장하는 것은 전사의 기능으로”(『천개의 고원』 526), 도주선의 무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올란도의 남장/ 여장의 전환은 이항적 구조를 넘어서서 그/ 그녀가 도주선의 무한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복장 도착은 고정되고 중심화된 개념을 뒤집고,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의 탈주의 욕망을 의미한다. 화자는 “어느 사람에게도, 하나의 성으로부터 다른 성으로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것도 의복인 것이다— 그 의복아래 숨겨진 성이 외형과 전연 상반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복잡, 혼란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190)며, 복장은 성별 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복장은 자아의 정체성이나 성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양면을 이용해 올란도는 두 성 혹은 다양한 성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올란도는 “의복이란 ...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도 변화시키고,” “선장 바틀러스(Bartolus)가 올란도의 치마를 보자 웅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188-90)며, 복장은 고정된 정체성에서 자아를 탈영토화하는 매체가 됨을 계속 지적한다. 올란도(Orlando) 이름의 “or/ and가 의미하듯”(Bowly 49), 여성 혹은 남성, 여성과 남성이 될 수 있는, 혹은 그것들 모두일 수도 있고,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닐 수 있는 특이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올란도는 “n개의 성”(『천개의 고원』 528), n개의 모습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듯 올란도의 자아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성된 것으로서, 고정된 자아관념에서 해방되어 있다. 복장이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듯, “옷이 우리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많은 근거가 있

다”(189)며, 복장이 우리의 성별이나 가치관을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옷을 우리의 팔이나 가슴의 형을 떠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옷은 그들의 기호대로 우리의 마음과 두뇌, 그리고 언어들을 빚어낸다”며 복장은 우리 존재 자체를 나타내주고,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복장이 우리의 외형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자아나 욕망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장은 자아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얼굴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자아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비유로 작용한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성은 인위적이며 허구적이며,” “성은 젠더의 이념에 의해 구성되며 ... 따라서 남성 역할을 하는 한 여성도 남성이다”(Watkins에서 인용 48)며, 저항적 성 정치의 하나로써 성의 “수행적” 역할을 강조한다. 올란도는 복장착용에 따라서 고정된 성별 경제개념에서 벗어나 그/ 그녀의 의지에 따라 자아의 영역을 넓혀간다. 즉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다양체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자아를 생성케 하는 올란도의 다양한 복장 착용은 그/ 그녀가 이분법적 공간에서 탈영토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올란도는 자신의 변장된 모습 속에서 더욱 편안함과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다. 복장도착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한 페미니스트 마조리 가버는(Majorie Garber)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에서 이성 복장 착용은 젠더의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왔고, 이런 복장 도착자들은 심리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³⁾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올란도』에선 이성의 복장 착용은 공포나 비탄의 요소가 되기보다 위로나 즐거움이 되고 있다. 올란도는 “자주 남자로 되었다가 여자로 되었다가 했으니 말이다...인생의 향락이 증가하고, 경험이 배가 되었다. 남녀의 사랑을 똑같이 즐기는 것이다”(221)며 남장/ 여장으로 자아의 계속적인 변화와 자유를 추구한다. 그/ 그녀는 고정된 성별의 영역에서 탈영토화하는 분자들의 흐름속에 있다. 이처럼 『올란도』에서 이성 복장 착용은 성별의 구분에서 오는 억압된 체제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으며, 위계적인 이분법적 성별구조의 해체를 위한 탈주선의 요소로 작용한다.

3) 가버는 *Vested Interests: Cross-Dressing and Cultural Anxiety*에서 복장도착은 이분화된 영역인 흑인/ 백인, 유대인/기독교인, 귀족/ 부르조아, 주인/ 하인 경계의 구분을 의문시하는 “카테고리 위기(category crisis)”를 의미한다(16)고 주장하고 있다. 가버는 이성 복장 착용자를 제 3의 성으로 보고, 젠더를 수행(performance)으로 봄으로써 성과 젠더의 개념을 구별한다.

Ⅲ. 성전환: 욕망의 다양성

올란도는 잠에서 깨어나기 전 “순결,” “겸손,” “정숙”의 여신들이 등장하며, 어디선가 “진실”이란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이 여성으로 전환된 것을 경험한다. 신비하게도 “남성의 강함과 여성의 우아함”(104)이 공존하며, 여성으로 전환된 올란도에게 여전히 남성의 힘이 있음을 느낀다고 화자는 설명한다.

올란도는 여성이 된 것이다—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밖의 점에서는, 올란도는 꼭 그전 대로였다. 성전환은 일생을 변화시키기는 하나 동일인이라는 것은 조금도 다름없다. 얼굴생김은 조금도 다름없는 그대로다. 그의 회상은—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그’ 대신에 ‘그녀’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따라서 그녀는 아무런 막힘도 없이 지난날의 모든 사건을 더듬을 수가 있었다. ... 올란도는 나이 서른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남성이었지만 한 번 여성이 되자 그 후 줄곧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137)

올란도는 성전환을 통해 고정된 성의 정체성 개념을 거부하며, 생물학적이고 심리적 성별 구분의 자연 법칙과 규범을 깨고 완전히 탈영토화한다.

또한 올란도는 자연과의 접촉/ 만남에서 자신을 탈영토화하는 자유스런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교만하고 물질적인 문학가 닉 그린(Nick Greene)의 문학세계에 실망한 뒤 자연에 몰입되며 “하늘과 잔디는 파랗고 초록색이 아니라, 잔디는 ... 요술 걸린 숲으로 달아나고 있는 **소녀들의** 질주와 같다”(77 필자 강조)며 해방감을 만끽한다. 올란도는 자연과의 합일 속에 소녀처럼, 자신을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스런 중간자적 존재라고 느낀다. 여기에서 질주하는 소녀의 모습은 들뢰즈의 “소녀-되기” 개념과 비슷하다. 들뢰즈/ 가타리에게 소녀는 곧 여성-되기이다. 즉 여성/ 남성, 어른/ 아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이며, “특정한 연령, 성, 질서, 권역에 속하지 않으며, 연령들, 성들 사이에서 미끄러지며,” “남성, 여성, 아이, 어른 등 대립하는 각 항과 동시에 존재하는 생성의 블록과도 같다”(『천개의 고원』 524)고 주장한다. 이 소설에서 소녀-되기의 언급은 올란도가 자아의 견고한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되기를 계속 시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올란도는 전기작가로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쓸 때도 과거/ 현재, 어린이/ 어른, 자연/ 인간, 여성/ 남성 등의 이분법적 카테고리에 분리시켜 놓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되기를 통해 접목시킨다. 즉 그/ 그녀는 이항적인 대립 요소를 수직 관계에 놓지 않고, 횡적이고 수평적인 탈영토화의 선을 만들어간다. 올란도는 과거를 수직적인 개념에 놓지 않고, 현재와의 되기에 의해 계속 블록(선)을 형성하여 수평적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들뢰즈/ 가타리에 의하면 올란도의 어린 시절 회상은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어린시절의 기억들”처럼 집단적이며 다수적이고 수직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올란도』는 기억에 의해 작동되지 않는다. 블록, 나이의 블록, 시대의 블록, 자연 왕국의 블록, 성의 블록에 의해 작동된다. 그래서 사물들 사이 많은 되기를 형성하고 탈영토화의 많은 선을 형성한다. (『천개의 고원』 556)

올란도는 횡적인 개념의 과거, 나이, 시대의 블록을 형성하여, 생성의 선을 수 없이 만들어간다. 올란도의 자아나 욕망은 고정되지 않고, 다른 새로운 대상과의 접속에 의해 끊임없이 수평적인 자아를 생성해간다. 이런 수평적이고 계속적인 자아의 팽창은 들뢰즈/ 가타리가 주장한 리좀(rhizome, 정해진 기원이 없고,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뻗어가는 뿌리 줄기 혹은 덩이 줄기) 개념과 유사하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서양란과 말벌의 이접적인 결합을 통해 리좀 개념을 설명한다. 말벌은 서양란의 꽃가루를 전해줌으로써 난의 생식기관의 일부가 된다. 이는 곧 말벌이 탈영토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말벌이 이처럼 서양란의 꽃가루를 날라다 줌으로써 말벌은 서양란을 재영토화한다 (『천개의 고원』 25).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생물인 말벌(동물)과 서양란(식물)이 같은 탈영토화/ 재영토화 과정에서 하나의 리좀으로 재구성된다. 이 둘은 상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의 고정된 것에서 길을 열어주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리좀은 존재의 뿌리와는 달리 탈주의 선에 대한 은유로서 기원과는 상관없이, 무한한 횡적 팽창을 의미한다. 이 소설에서 올란도는 대상과의 관계속에서 리좀적 자아를 형성해 간다. 올란도는 통나무 집을 지나다가 자연속에 몰입되면서 “고요 속에서…진정한 자아가 되었다… 자아들(2천 개 이상이 있을지 모르는)이 분리되는 것을 의식하면서”(250 필자강조), 리좀처럼 뻗어나가는 수 천개의 자아를 인정한다.

올란도는 일생동안 여러 사람과의 만남, 즉 사샤와의 만남, 아이를 낳음, 넬

(Nell)과 셸머딘(Shelmerdine)과의 만남에 의해 무수한 새로운 자아를 경험한다.

그녀는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전기는 단지 여섯이나 일곱 개의 자아만 설명해 내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한 사람이 많게는 천 개의 자아를 가질 수 있다 ... 산꼭대기에 앉아 있던 소년, 시인을 만났던 소년, 장미향의 물그릇을 여왕에게 바쳤던 소년 ... 사사에게 사랑에 빠졌던 젊은이, 신하, 대사, 군인, 여행기의 자아 ... 집시였던 여자, 아름다운 귀부인, 은둔자, 삶과 사랑에 빠진 여자, 문학의 후원자 ... 이 자아들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들 중 아무나 불러낼 수 있다 ... 그녀가 원하는 자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자신의 자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자아가 있는 것이다. (246 필자강조)

올란도는 다른 이질적인 것과의 접촉에 의해 다른 자아가 들어옴을 느낀다. 사사와 만났을 때의 소년의 순수한 자아, 여왕의 사랑을 받아서 살았던 귀족신분으로서의 자아, 닉 그린과 문학세계의 꿈을 가졌던 자아, 인기 있는 미청년으로서의 자아, 연인에게 배반당한 사랑에 빠진 청년으로서의 자아, 모험가로서의 자아, 훌륭한 외교관으로서의 자아, 집시와 접촉하여 탈주의 삶을 살았던 자아, 셸머딘과의 낭만적 욕망에 젖었던 자아 등 이런 다양한 자아들이 모든 올란도의 일부분이자, 다양한 자아이다. 올란도는 “탐욕스럽고 부자이며, 부도덕하지, 나?(이때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다)”라며, “웨이터의 손에 겹겹이 쌓여진 집시처럼,” “두서 없고 연결이 안 되며 ... 이해할 수 없는” (246-7 필자 강조) 여러 층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올란도의 자아는 이런 다양한 새로운 되기에 의해 계속 변화된다. 올란도는 들뢰즈식의 “n개의 성”을 이루는 다양한 “되기”를 작동한다.⁴⁾ 즉 단일화가 아닌 이질적인 요소의 종합이며, 탈영토적 움직임의 끝없는 자아를 생성한다.

4) 들뢰즈/ 가타리에게 모든 사물은 배치(agencement)란 접속항에 따라 그 성질과 차원도 달라지는 다양체이다. 한 항은 이웃하는 항과의 접속에 의해 그 성질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권용선은 “올란도의 여자-되기는 다양한 것들과 접속하고 그것들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과정, 분자운동으로서의 여자-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성도 아닌 N개의 성을 이루고 다양한 ‘되기’들을 작동시킵니다”(231) 며 올란도의 다양한 자아를 들뢰즈식의 욕망 구도로 보고 있다.

울프의 전기작가 허마이오니 리가 “올란도의 전기작가는 올란도의 자아들을 계속 해체하고 다시 조립한다” (1052)한다고 지적하듯, 올란도의 “욕망은 항상 유목하며, 이동하고 있다” (『앙띠 오이디푸스』 431). 그녀의 욕망은 오이디푸스에 의한 수직적 위계질서에 경직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올란도는 “오이디푸스적 욕망의 카테고리에서 탈영토화해서”(Driscoll 75), 들뢰즈/ 가타리의 “다성성욕(polysexuality)이나 다양한 성욕(multiple sexuality)”(Rosi Braidotti 1428)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올란도의 욕망은 일정한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대상과의 새로운 접합에 의해 무수한 생성을 지향하는 유목적 형태를 지닌다. 드리스콜(Catherine Driscoll)은 울프와 들뢰즈/ 가타리는 유사한 욕망 구도를 제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리스콜에 의하면 “울프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들뢰즈/ 가타리처럼 여성이란 무한대이고, 과정 혹은 사건이며, 말하는 주체가 되며,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으며”(80), 또한 울프는 들뢰즈/ 가타리처럼 “오이디푸스 구조를 반대하고 있다”(65)는 것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하나의 성, 즉 남성 밖에 없고 남성에 대하여 여자는 결여로서, 여자의 성은 부재한다는”(『앙띠 오이디푸스』 433) 프로이트의 사고를 비난한다. 들뢰즈/ 가타리는 욕망을 억압된 결핍으로 보는 프로이트나 욕망을 언어처럼 구조된 것으로 생각한 라캉과 달리, 욕망이란 생산적이고 유동적인 삶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아버지-어머니-나) 구조에 채영토화된”(『앙띠 오이디푸스』 447) 체계는 욕망에 의해 탈영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체/ 타자, 나/ 그것 등은 대립되기 보다 연결되고 움직이는 모델로 보았다. 즉 욕망은 대립된 구조 속에 존재하기보다, 스피노자나 니체처럼 “내재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창조적인 관계”(Grosz 1449)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들뢰즈의 구조에서처럼 올란도의 욕망은 오이디푸스 체계 안에 갇히지 않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18세기 포프, 에디슨, 스위프트 등이 여성을 “진주로 치장한 로맨틱한 동물”로 간주한 수직적 젠더 관계에서 올란도는 탈영토화하여, 또 다른 “사물과의 배치”(『올란도』 168)를 추구한다. 올란도는 창녀 넬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170)의 즐거움에 도취된다. 올란도는 여성으로 전환된 후 남장 상태에서 남성의 지배권도 누리보고, 성적 욕망도 채우는 이중적 “기득 이권(a vested interest)”(Bowlby 49)을 누린다. 하지만 욕망이 그녀를 지배할 때 올란도는

수직적 오이디푸스 욕망(남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동성에 욕망을 밝힌다. 넬 또한 “툭 털어 놓고 얘기하면요. (그리고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급격하게 태도가 변하고 슬픈 듯이 호소하던 말투가 사라지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터놓고 얘기하면, 오늘밤은 남자와 동침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 하던 참이었어요”(218)라며 자신의 동성에 욕망을 솔직하게 밝힌다. 올란도와 넬은 사회에서 요구한 자아의 정체성에 합당한 성별 역할 구분의 옷을 모두 벗어버린다.

하지만 올란도의 욕망이 이런 동성적 구조에만 머물지 않고 유동적임이, 셸머딘과의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올란도는 셸머딘과의 관계에서 남성에 반대되는 여성으로 이항적 대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 남녀 양성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셸머딘을 만났을 때 올란도는 자아 속에 남녀 양성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오 셸! 떠나지 말아요! 그녀는 소리쳤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답니다.” 라고 외쳤다....

“당신은 여자로군요, 셸! 그녀가 외쳤다.

“당신은 남자로군요, 올란도!” 그가 외쳤다. (251-2)

올란도는 여성이 된 후 서로의 젠더에 대해 불확실하게 알 때에도 셸과 만족스런 관계를 갖는다. 서로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남성/ 여성을 발견하게 되고, 처음 본 순간부터 그들은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 올프는 확실히 사람들 안에 내재한 남녀 양성을 지적하며, 그것의 타당성을 부연 설명한다. 여기에서 남녀 양성의 존재는 전통적인 고정된 성별 구분과 규범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며, 생성과 과정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올프의 양성성은 남녀 각각의 성이 반대쪽 성을 품고 있으며 자기 안에서 자신의 성의 반대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질적인 것과 결합하려는 들뢰즈 식의 되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분법적 개념을 옹호한 것이라기보다, 이질적인 요소와의 만남/ 접속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평가 코기(Pamela Caughie)는 『올란도』에서 “남녀양성의 비전은 이항적(dichotomous)이 아니며...그것은 위치 사이의 동요(vacillation)이며 단조로움과 규율을 거부한다. 전통적인 성별 구분 형태에 대한 과정을 폭로하고 있다”(82)고 주장한다. 코기의 주장처럼 이 소설에서 남녀 양성은 다양한 자아, 동적인 과정, 변화, 생성에 대한 비유로 작용한다. 남녀양성은 타입이 아니라 과정, 반응이며, 자아가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즉 자아 내에서 타자와 접속/ 만남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올란도의 욕망이 유동적이고 유목적이며 생산적임이 올란도와 대공 해리(Archduke Harry)의 계속적인 변장 장면에서 더욱 강조된다. 올란도와 대공(올란도가 남성일 때, 대공은 대공비의 모습으로 구애했고, 올란도가 여성일 때 본래의 모습으로 올란도에게 구혼함)은 변장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전기작가는 올란도와 대공은 “기꺼이 십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 그리고는 자연적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179)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올란도와 대공의 계속적인 변장을 통해 욕망이란 여성/ 남성의 이항적 대립을 넘어서서, 성별의 구분에 제한 받지 않고 계속 생성되고 유동적임이 강조되고 있다.

올란도는 잠시 집시들과 생활하는데, 이런 집시 체험은 또 다른 되기의 한 과정이다. 그녀는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법률의 영역을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하며, 다양한 되기의 생성을 만들어간다. 올란도는 자연을 벗삼아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산다. 밤이 오면 산들이 그들을 에워 싸준다”(112)며 자연과의 접촉에서 집시-되기가 되며, “유목적인 주체”가 된다. 올란도는 집시와의 계급의 벽을 허물고, 모든 다양체를 포함하여 탈영토화된 자아를 만들어 간다. 올란도는 자신과 자연을 동일시함으로써 타자로서 자연이 아니라, 인간/ 자연의 이분법적 관계에서 자신을 탈영토화한다. 집시-되기는 인간의 문화 집단에서 “역행”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역행”은 “퇴행”이 아니다. “되기는 역행적이며, 이 역행은 창조적이기”(『천개의 고원』 453-4) 때문이다.

하지만 올란도는 집시 세계에 계속 영주하지는 않는다. 잉크나 종이가 없어 시(1586년에 시작한 시 「참나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며, 또한 자신의 부도 받아들이지 않는 집시들의 “건고한 사고의 틀”에서 탈영토화하여 올란도는 젊은 여성 복장을 하고 런던의 영국 귀족사회의 여성-되기에 재배치된다. 올란도는 평생동안 시를 씀으로써 예술-되기를 추구해 왔으며, 영국에 돌아와서야 그녀의 예술-되기는 계속되고 완성되어진다. 이처럼 올란도는 “n개의” 자아를 이루는 다양한 되기를 계속 작동시켜 나갈 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밤과 낮이 교차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야생 기러기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데, 이것은 이항적인 것이 합쳐지고, 새로운 것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기러기는 모든 것이 솟아오름을 상징하며, 양성의 이항적 체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것이 솟아오르고 생성됨을 의미한다. 허마

이오니 리는 이 작품에서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침묵, 말하지 않은 것이 소설의 틈새 숨어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울프의 작품중 유일하게 『올란도』와 『자기만의 방』은 “죽음이 없고, 자유를 위한 시도이며, 여성들은 억압과 제한의 역사에서 해방되는”(1050)유토피아적 결말을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란도』는 결말을 유도하지 않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적 결말을 생성해간다.

올란도는 과거 로시나 페피타(Rosina Pepita)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법적 권리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결혼 제도에 재영토화되지 않는다. 즉 올란도는 5장에서 보여준 “해마다 열다섯이나 스무명의 아이를 낳는”(183) 비인간적인 임신이나 여성의 운명 등 빅토리아조의 결혼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올란도는 “진실로 이 결혼이란 제도에 의한 육체들의 결합에는 그녀의 점잖음과 위생 감각에 혐오감을 준다”(190)며 빅토리아조 결혼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올란도는 셸머딘과 결혼하지만 이런 빅토리아조의 견고한 결혼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탈영토화한다.

올란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1928년 10월로 끝을 내지만, 그녀는 계속 자신의 역사를 만들고, 과거의 삶에 대해 다시 쓸 것이다. 즉 올란도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출발점도, 도착점도, 기원도 목적지도 없는”(『천개의 고원』 555) 자신의 역사를 계속 생성할 것이다. 소설의 결말에서 아들의 출산은 삶의 구속이 아닌 영속성을 의미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올란도가 “그녀의 가슴을 노출시키면서 보석들이 인광을 발하듯이 반짝이는”(328) 모습은 성별의 이분법적 틀을 깨고, 욕망의 관습적 틀에서 자유롭게 된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IV. 나오는 말

위에서 논의했듯이 올란도는 들뢰즈/가타리 개념의 “여성-되기”를 추구하고 있다. 성별구분이 애매모호한 복장착용과, 계속적인 남장이나 여장으로 올란도는 “여성-되기”를 추구하며, 이런 되기는 성별의 위계적인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와, 나아가 자신의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서 탈주의 욕망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이성의 복장 착용은 성별의 이분법적 구분의 틀에서 벗어나 탈주하는 욕

망을 의미하며, 견고한 선을 무너뜨리는 자아의 생성을 암시한다. 들뢰즈/ 가타리는 욕망이란 프로이트의 가족적 오이디푸스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족 구조 바깥에서 무수히 변화되고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구도처럼 올란도는 다른 대상과의 새로운 접속에 의해 무수한 욕망과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올란도는 셸머딘과 결혼하지만, 그녀는 결혼이란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야생기러기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끝없이 솟아 오르고 날아다니는, 세상에서 탈주하는 혹은 세상을 탈주시키는 자유로움을 계속 추구한다. 이처럼 이 소설은 기존의 욕망 구도에서 탈주하여, 새로운 다양한 욕망 구도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올란도』의 복장 착용이나 성전환과 관련한 자아나 욕망의 함의에 관한 본 연구는 이항적 카테고리(남성/ 존재, 여성/ 결여)나 남근 중심적 사고를 재검점해 보게 하며, 나아가 우리속에 내재한 무수히 생성되는 자아나 욕망, 견고한 틀에서 탈주하는 욕망을 보게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21세기 문화적 현상인 성전환이나 복장 도착 현상을 새로운 관점과 각도에서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현대의 문학 작품을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과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발대)

인용 문헌

- 권용선. 「N개의 성, 그 외부로 향한 열망」. 『들뢰즈와 문학-기계』. 고미숙 외 6인. 서울: 소명, 2002. 202-36.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앙띠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최명관 옮김. 서울: 민음사, 1972.
- _____.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김재인 옮김. 서울: 새물결, 2001.
- 이진경. 『노마디즘 1: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서울: 휴먼 라이브러리, 2002.
- 허마이오니 리. 『버지니아 울프 2: 존재의 순간들, 광기를 넘어서』. 정명희 옮김. 서울: 책세상, 1996.
- Bowlby, Rachel. *Feminist Destinations and Further Essays on Virginia Woolf*. Edinburgh: Edinburgh UP, 1997.
- Braidotti, Rosi. "Toward a new nomadism: feminist Deleuzian tracks; or, metaphysics and metablism." *Deleuze and Guattari: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 Vol III*. Ed. Gary Genosko.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1414-39.
- Bullough Vern L. and Bullough Bonne. *Cross Dressing, Sex, and Gender*.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0.
- Caughie, Pamela L. *Virginia Woolf & Postmodernism: Literature in Quest & Question of Itself*. Urbana and Chicago: U of Illinois P, 1991.
- Driscoll, Catherine. "The Woman In Process: Deleuze, Kristeva and Feminism." *Deleuze and Feminist Theory*. Eds. Ian Buchanan and Claire Colebrook. Edinburgh: Edinburgh UP, 2000, 64-85.
- Flieger, Jerry Aline. "Becoming-Woman: Deleuze, Schreber and Molecular Identification." *Deleuze and Feminist Theory*. Eds. Ian Buchanan and Claire Colebrook. Edinburgh: Edinburgh UP, 2000, 38-63.
- Garber, Majorie. *Vested Interests: Cross-Dressing and Cultural Anxie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3.
- Grosz, Elizabeth. "A thousand tiny sexes: feminism and rhizomatics," *Deleuze and Guattari: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 Vol III*. Ed. Gary

- Genosko.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1440-63.
- Hankins, Leslie Kathleen, “*Orlando*: ‘A Precipice Marked V’ Between ‘A Miracle of Discretion’ and ‘Lovemaking Unbelievable: Indiscretions Incredible.’” *Virginia Woolf: Lesbian Readings*. Eds. Eileen Barrett and Patricia Cramer.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P, 1997, 180-202.
- Jones, Ellen Carol. “The Flight of a Word: Narcissism and the Masquerade of Writing in Virginia Woolf’s *Orlando*.” *Women’s Studies* 23(1994): 155-74
- Watkins, Susan. “Sex Change and Media Change: From Woolf’s to Potter’s *Orlando*.”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31(1998): 41-59.
- Woolf, Virginia. *Orlando: A Biography*. New York and London: A Harvest Book, 1928.

Abstract

Woolf's Orlando: Deleuze and Guattari's "Becoming-Woman"

Jin-Ok Kim

Orlando cross-dresses as a woman, and chooses "a woman's sex." Bored with the restrictions of her femininity, Orlando decides to "cross-dress" as a man and seek adventure. Orlando's transvestism and transsexuality in *Orlando* deconstruct the binary gender system, and further open up the space for multiplicity of sex and self.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Orlando's desire for becoming a woman, using Deleuze and Guattari's concept of "becoming-woman."

Orlando's vision of self is not binary but multiple; not dualistic but interconnected; not fixed but flowing. Deleuze and Guattari insist that all binaries privilege one term as standard, "white," "male," "adult," "rational." "Becoming-woman" is a first shift, destabilizing Western "binary oppositions." They oppose the linear, self-reflexive mode of thought, "logocentrism" that Derrida and others criticize. As Deleuze and Guattari suggest, *Orlando* "deterritorializes" the normative models and seek multiplicity of self. Orlando's change of his/ her clothes subverts the hierarchical binary gender structure. The category "sex" is an artifice: gender as a performance is apparent in many scenes in *Orlando*. Orlando's transvestism deconstructs the dichotomous vision of self and doubles his/ her pleasure.

Orlando attempts to "deterritorialize" and to draw a "line of flight" between states which displace and disorient subjects and identities. He/ she subverts the conventional meanings of identity, desire and modes of thinking. His/ her vision of the self does not rest upon the dichotomous opposition of masculine and feminine positions, but rather on a multiplicity of self and sexuality. Orlando's self and sexuality, borrowing Deleuze and Guattari's terms, are "rhizomatic" (going in all directions, any point connecting with any other point, as opposed to the branching

structure of the tree). Orlando as a biographical writer describes his/ her multiple selves: “the boy as a poet, the young man as Sasha’s lover,” self as “an ambassador, or the Gipsy, or the Fine Lady…” Her/ his selves, as in a rhizome group, are continuously connected with other various objects. The narrator states that “all (Orlando’s) selves were different,” and “she may have called upon any one of them.” In this way, Orlando has “n” selves and “n” sexualities. The final scene of *Orlando* (in which the narrator describes the flight of “a wild goose”) symbolizes Orlando’s desire to redefine the conventional forms of self and sexuality.

- 주제어: becoming-woman, transvestism, transsexuality, lines of flight, deterritorialization, androgyny, rhizome, multiplicity (여성-되기, 복장 도 착, 성전환, 탈주선, 탈영토화, 양성성, 리좀, 다양체)